

못자리

8월



제 1715호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77 사목국 못자리 담당 전화번호 054)858-3114~5 홈페이지 <http://cafe.daum.net/motzary>



친구들, 여름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이번에 떠나볼 성지는 '대구대교구'의 성지들이에요.
'관덕정 순교 기념관' - 대구대교구 제2주보성인 이윤일 요한의 유해가 모셔져
있으며, 순교자 열일곱 분이 처형당하신 곳.

'신나무골 성지' - 경신박해 때 순교한 이선이 엘리사벳의 묘가 있으며,
다블뤼 주교와 최양업 신부가 사목한 장소.

'한티성지' - 1850년 말경 큰 교우촌을 이루던 곳으로, 병인박해(1866년)로
많은 교우가 처형된 순교지.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부모님과 함께 대구대교구의 성지로
순례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복음

8월 3일 연중 제18주일 <루카 12,13-21>

그때에 13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14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15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1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17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18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곳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는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19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20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이 되겠느냐?' 21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신부님의 주일학교 시절



Fr. 박철현 가브리엘

못자리 친구들, 청송성당 박철현 가브리엘 신부예요.

무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주일학교 시절 사진을 찾다가 신학생 때
휴천동 성당 주일학교 친구들과 눈썰매를 타며
즐거워 보냈던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새삼 그때의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하네요.

무더운 여름, 눈썰매를 타며 시원함을 느끼던 그때를 기억하며,
더위 잘 이겨내길 바라요.

우 리 들 이 야 기 ★



★송현동 성당 4학년 조예은 안나

나는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나라엔 돈이 필요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돈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있다

★송현동 성당 4학년 조예은 안나

오늘의 복음

8월 10일 연중 제19주일 <루카 12,35-40>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5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36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37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38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39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40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답3 퀴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3명을 찾아보세요.

퍼즐

가로세로

성	수	욕	발	반	보	노	불	의	광
령	모	아	우	구	스	티	호	복	도
기	습	승	화	신	심	라	절	중	의
황	금	구	천	사	은	혜	벧	사	심
분	열	신	마	치	총	사	일	장	보
수	외	의	탐	심	리	부	도	상	답
광	행	복	욕	엘	모	정	모	카	피
불	부	경	락	무	적	전	구	절	부
시	멸	영	계	나	등	잔	다	르	크
파	산	적	대	강	화	불	빛	깔	롱

1.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루카 12,15>
-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2.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을 켜 놓고 있어라." <루카 12,35>
- 앞날에 희망을 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을 일으키러 왔다. <루카 12,51>
- 찢어져 나뉨.
4.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를 일삼는 자들아!' <루카 13,27>
- 의리, 도의, 정의 따위에 어긋남.
5. "그들이 너에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루카 14,14>
- 남의 호의나 은혜를 갚음.

오늘의 복음

8월 17일 연중 제20주일 <루카 12,49-5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49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50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51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52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53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달의 생활성가

해바라기 노래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는 이날...

더위에 지친 우리 친구들 매우 힘들죠?

그래도 우리 더 힘내서 여름을 이겨내 보자고요.^^

여름의 대표적인 꽃으로 해바라기가 있어요.

해바라기의 꽃말은 '당신만을 바라봅니다'를 뜻해요.

언제나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해바라기 노래'를 들어보도록 해요~



@유투브 - 김정식 로제리오

우 리 들 이 야 기 ★



★영양 성당 4학년 이지아 클라라

예수님께서 불을 지르러 오셨고 서로를 갈라지게 하신다는 복음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고 두서너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을 지르러 오신 걸까? 곰곰히 생각해 보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았다. 신불로 불타 모두 죽어버린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새이 돌고 동동들이 태어난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싸우게 되지만 화해하면 더욱 사이가 좋아진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새이 돌듯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신 것 아닐까? 이웃이나 가족과 더 깊게 사랑을 방법을 알려 주신 것 아닐까?



★영양 성당 5학년 이도은 마리아

오늘의 복음

8월 24일 연중 제21주일 <루카 13,22-30>

그때에 22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23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24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5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26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27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28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29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30 보라, 지금은 꿀짜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꿀짜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성경 도시

카나(קַנָּה, Cana / Kanah)

- 히브리어로 '갈대'라는 의미를 지니며 갈릴래아에 있는 도시로 소개됨.
- 예수님의 제자 중 나타나엘이 이곳 출신으로 소개됨.
- 실제로 어느 도시인가는 논란이 있지만, 나자렛에서 북동쪽으로 6km 떨어진 곳.
- 갈릴래아 호수 티베리아로 내려가는 지방 도로변에 있는 도시인 카파르 카나가(Kafar Kanna) 17세기 가톨릭교회에서 성지로 인정되었음.
- 1948년 이후 이스라엘 일부가 되었고 현재 2만 4천 명의 무슬림과 그리스도교인이 사는 곳.



희망의 순례자들



송현동 성당 나간사키 성치순례



영양 성당

오늘의 복음

8월 31일 연중 제22주일 <루카 14,1.7-14>

1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7 예수님께서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8 "누가 너를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9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10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 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11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12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13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14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가톨릭 성인(聖人) 이야기

성 도미니코 (8월 8일 축일)

성 도미니코는 어느 날 꿈속에서 죄 많은 세상을 보게 되었는데,
성모님의 도움으로 세상이 구원받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성모님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을 가리키셨는데,
한 사람은 도미니코, 다른 한 사람은 프란치스코였어요.
도미니코는 프란치스코를 얼싸안고 환영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나의 친구, 나와 함께 가야 해요.

만일 우리가 함께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을 거예요."

이러한 전통을 지키려고 오늘날에도 도미니코회 수사님들과
프란치스코 수사님들은 함께 만나 미사를 봉헌하며 친교의 시간을 갖는답니다.



다른 그림 찾기



↓ 다른 곳도 그림 찾으세요.





<1주간> : 연중 제18주일

1. 오늘 복음 중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① 부유한 사람 ② 하인 ③ 재판관 ④ 중재인

2. 오늘 복음을 읽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2주간> : 연중 제19주일

1. 오늘 복음을 읽고 서로 관련된 것을 연결해보세요.

- | | |
|--------|------------|
| ① 허리 · | · ㉠ 두드리다. |
| ② 문 · | · ㉡ 띠를 매다. |
| ③ 등불 · | · ㉢ 앓다. |
| ④ 식탁 · | · ㉣ 켜다. |

2. 오늘 복음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너희도 ()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이 올 것이다.

1. 오늘 복음에 나오는 단어가 아닌 것은?

1. 오늘 복음을 읽고 가장 많이 나온 동사를 고르세요.

주간 퀴즈

<5주간> : 연중 제22주일

1.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에 초대받게 된다면 앉지 말라고 하신 자리는 어디일까요?

① 윗자리

② 오른쪽 자리

③ 왼쪽 자리

④ 옆자리

2.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초대하라고 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① 가난한 이들

② 장애인들

③ 부자들

④ 눈먼 이들

메 모 장



성지순례 스템프북



부산교구



마산교구



대구대교구



당첨자

6월 15일 정답자

화 령 이지향 홍채율

6월 22일 정답자

목성동 김준서 김아인

6월 29일 정답자

남성동 박서진 박서준

7월 6일 정답자

갈전 마티아 박민준



알림판

◆ 우리들의... "여름이었다."

못자리 친구들!

이번 여름신앙학교는 9개 본당의 친구들이 참여했어요.

[강구 1명 휴천동 2명 풍기 3명 개운동 5명 영덕 5명 용상동 5명
예천 8명 모전동 10명 송현동 16명] 함께 기도하고 게임도 하고,
물놀이도 하며 신나는 시간을 보냈어요.

"십계명과 고해성사"의 의미를 배우고,
하느님의 크나큰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 10,37)

◆ 9월 못자리 "우리들 이야기" 순서

- 9월 7일 : 의 성 성당

- 9월 21일 : 화 령 성당

(※ 원고는 8월 5일까지 사목국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